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20, 서울YWCA회관 701호 TEL: 774-4050, FAX: 774-4090

- ◆ 제 목 : BMW차량 화재와 관련된 리콜제도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
- ◆ 날 짜 : 12월 13일(월) 오후 13시 30분
- ◆ 장 소 : 서울YWCA회관 4층 강당

BMW화재! 끝나지 않는 소비자피해! 차량결함을 부품교환으로 해결하려는 리콜제도의 문제 제기를 위한 기자회견

BMW 차량화재 안전관련 중요 제품결함에도 일부부품 교환으로 처리
제품안전관련 자발적 리콜제도 근본적 개선 필요

□ BMW는 국내 차량 화재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이후 2018. 8. 20. 첫번째 리콜을 실시했으며 그 뒤로도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리콜은 화재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에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화재 기간만 늦추는 임시방편인 리콜이다. 그럼에도 BMW는 이번달부터 520d 등 EGR 쿨러를 추가 교체하는 리콜을 또 진행하고 있다.

□ 정부는 차량 화재로 인하여 BMW에 이례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비공개하였고 설계상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부품만 바꾸는 불안정한 리콜만 계속해서 승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정부가 사태를 방관하는 것이다.

□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원영희 회장)와 11개 회원단체는 ‘BMW차량 화재와 관련된 리콜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피해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월 13일(월) 오후 13시 30분 서울 YWCA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BMW화재와 관련해서 소비자의 생명 안전권을 지키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며, 나아가 다수의 피해소비자 구제 및 예방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및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참여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회원단체(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진행순서

- ◆ 사회 : 이정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 개회사 : 원영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 규탄 발언
 - BMW 화재사건에 대한 정리 : 정지연(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실행위원장)
 - 전문가발언1 : 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전문가발언2 : 손창완 교수(녹색소비자연대이사/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주원(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 ◆ 질의응답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